



# *Web Contents*

---



2024년 05월 04일 23시 25분



## @ 엄청난 보건복지 수출정책

2009.10.19 조희수 155 등록자 최권

★ 진짜로 영원한 비밀의 축복이고 이 영광스런 고백을 삭제하면 원수되어 본인과 가정의 저주로 고통과 죽음을 입고 인류 평화와 사후 낙원과 저주에서 여러분 진짜 목숨이다.

이 시대 내가 태초로 준비된 새 예루살렘 한국의 차기대통령을 해서 전세계 만인을 축복하고 섬기며 통치하는 위대한 백성이 되는 한국을 세우기 위해선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세 [이명박대통령] 아론 [김영삼전대통령] 아곱 [김선도 광림교회목사] 다윗 [문선명 통일교교주]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 사명받은 엄청난게 큰 영광스런 대언자 네 분과 함께 활동하던 주위 수많은 사람들과 국민이 합심해 인류를 이끌게 될 것이고 이 시대 한민족이 전세계로 보건복지와 농,수산물에서 중소기업과 과학에서 각 분야별 기술과 인력을 수출하고 모든 분야가 진출하는 출애굽으로 인류가 새롭게 기록되는 엄청난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젠 정부와 시,군청, 한국의 기업들은 전세계 나라별로 각 분야 준비하되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낙후되어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을 포함하여 전세계 각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어 하나님께 충성하여 기도하는 기업과 조직을 진출시켜 생산적 일터로 기업도 변창하고 사람도 구제로 영혼도 구원하면 한국의 자녀와 후손은 전세계를 옆집에 아버지 심부를 다니듯 하면서 온 인류를 휘저으며 신바람나게 전세계를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쳐 인류가 한국을 통해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세계 왕과, 대통령, 총리, 장관에서 각 분야 지도자와 유명인이 한국에 구름처럼 들러오면 가르치고 연합하여 남,북한 평화통일로 전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시온"을 세울 것이며 헌신과 봉사하는 사회를 건설해 전세계와 남,북한 백성이 서로 사랑해 안전하고 거짓없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태초로 선택받은 위대한 한국에서 암흑으로 지옥에 갈 만인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빛의 전세계를 세워 갈 것이다..세상의 모든일은 하늘에서 풀어져야 땅에서 풀어지며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일을 풀어 자랑스런 한국에 태어난 국민이란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국가를 세울것이다.

전세계에 있는 교포와 국민은 이 복음을 북한에 전하고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 독일, 프랑스, 말레시아 등.....전세계 왕이나 대통령과 지도자에게 전해 진짜 죽음의 부활과 천국을 알려 행복한 정치와 지도자가 되도록 전하고 알려 중앙이나 지역계시판 홈페이지로 전해 전세계 만민을 구원하는것은 영광스런 일로 거룩한 한국이 될 것이며 여러분도 세상 마지막날 죽으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칭찬받아 좋고 또 본인은 어떤 나라에 살던 전세계 평화를 위해 애국하는 길로 어떤 나라든 좋은 환경에서 대접받으며 자유롭고 범죄없이 행복하게 각자 생활하다 죽어도 에덴동산과 천국에 부활하는 빛이 될 것이다.

~~~~~

1993년 6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 때 지옥에서 천벌을 모두 끝마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모에게 아기로 잉태되기 위해 오는 영혼의 새 생명인 사람도 봤고 또 대결같은 큰 기와집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보여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누가 흰옷을 입고 길을 막아서서 이상해 쳐다보자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나타나 나를 보며 빙그레 웃고 계신다.

"아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난 구면이라 반가웠고 2000년전 인간들 죄악으로 지옥에 갈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 매달려 순교로 처형되신 예수님이시고 나와 여러분도 죽은 예수님으로 생각했겠지만 1981년6월 2000년전 활동하던 제자들 20-30명과 함께 예수님 뒤에 모두 지팡이 잡고 이스라엘 복장으로 우르르 몰려나왔던 주님께서 또 나타나 너무 놀랐던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신 이유는 구원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름위로 올려 지옥의 구경을 시키기 위해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 지옥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들어서면 죽은 시체가 되므로 십자가 피 뿌린 새 세마포 옷을 입으면 죽지않고 지옥에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 보내시어 새 세마포를 입혀주어 지금 세상에 존재하여 살아가는 모든 만민에게 지옥에서 겪은 실제상황 그대로 거짓없이 고백하는 것이다.

헌데 이제 구원사업이 시작된 이 시대 사후 하늘나라 천기를 모두 알려주시기 위해 1993년 6월 2번째 나에게 또 나타나시어 내가 하나님의 천아들과 돌이 있다는 반가움에 기분도 황홀하게 좋는데 빙그레 웃으시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더니 지옥의 북쪽 하늘을 쫓았던 2m정도의 긴 지팡이를 들어 먹구름으로 온통덮힌 컴컴한 소나기고기 직전과 같은 하늘을 가르키며 나에게 잘 보라는 것이다.

"자. 저기를 잘 보세요 저기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예수님께서 한국에 태어나 살았던 분같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말씀하시어 전세계 공용어를 한국어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해 소나기고기 직전과 같은 컴컴한 하늘을 쳐다보며 목사님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 못본다는 하나님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세히 봐서 전세계 사람들로 전하여 하나님 못본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해준다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시선을 지팡이로 가르킨 북쪽하늘로 집중했다...세상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독생자 아들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죽어 에덴동산에 가는 사람만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

내가 여러분께 하나님 봤으면 자랑하겠다고 했는데 인간들 비난과 조롱이 두렵고 죽음이 겁나서 내 치부를 숨기어 단점인 고집불통에 무식과 무지가 충만하여 온갖 죄악의 더럽고 추하며 하나님과 교인들을 욕하며 쓰레기같이 죄악의 괴수같은 방탕하게 생활한 내 양심적 죄악과 허물의 나약함을 감추고 숨기고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몇 백번 죽었다 살아나도 구원이 없으며 이전 과거에 어떤 범죄와 죄악으로 살았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악을 탕감해 주시어 회개로 거듭 태어난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스런 부활 영생을 당신이 나를 통해 알았지만 그대는 지옥에서 살아난 영광스런 축복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가르친 북쪽하늘을 보자 잠시후 컴컴한 하늘이 동그런 원을그리며 하늘에서 빛이 먹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반짝 반짝 쏟아지며 컴컴한 마을이 밝아오고 빛으로 비쳐지는 그 마을은 큰 대결같은 기와집들로 이루어진 부자들이 사는 마을로 생각되었고 당신의 죽음은 세상 죄수로 감옥에서 석방된 백만배 보다 큰 기쁨과 같은 축복이다.

● 첫 번째 신비로 먹구름 뚫린 하늘속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흰 비둘기 50-60마리가 반짝이는 빛과 함께 환상적인 모습으로 날아 들어오는데 "영"의 영체를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신"이 아니라면 이런 신비를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어떻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가 들어올지 상상이나 했고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 비밀과 하늘나라 천기가 드러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인간은 죽음속 부활을 전허들라 목자, 스님, 보살, 무당, 점쟁이, 장애인, 높은자, 부자, 가난한자 등.....죽으면 세상에서 돈과 물질, 권력에서 모두 사라지고 진짜 죽음은 사망후에 받는 엄청난 축복과 비극의 저주로 천국과 지옥의 두 장소뿐이다.

이 시대 내가 땅에 생활하며 체험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구름위에 올라가 모든 죽음의 사후 세계에 들어가 직접다니며 경험하면서 본 황홀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에덴동산과 공포의 지옥에 들어가 실제로 겪고 구경했는데 지금 부활도 모른채 참혹한 공포의 저주로 지옥가는 모습을 보며 구경만 하겠는가?.

인간은 아무리 높고 부자로 살아도 죽어서 받을 영생의 인생 이정표와 목표를 모르면 범죄하고 자살하는 시체로 살고 당신의 인생 목적을 만나면 죽음을 초월해 부자, 장애인, 노약자, 서민, 약자 그 누구든 역경을 헤치며 보람속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언제든 죽음도 천국에 가서 좋고 살아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영원한 천국의 그 엄청난 축복을 선들한다.

나도 창조주란 말이 생소하고 막연하게 죽음속 천국과 지옥도 안 믿었으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확인하지 않아 안믿었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라 죽어 공포스런 지옥에 갈 당신도 살리신 분이시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죽지않는 영생의 하늘나라도 만드신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재물이라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며 정죄하지 말고 이 신비스런 사건을 인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죽음속 부활의 비밀이다.

●● 두 번째 신비로 천주교에 가면 볼 수 있는 아기천사가 알몸에 독수리날개 비슷한 새의 날개를 달고 날개짓으로 20-30명 흩어져 날아오는데 나는 무척 놀라서 괴물 아이들도 있다며 자세하게 보았고 어떤 누구도 안 보고 이런 엄청난 비밀의 사건을 알려줄 수 없을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내리신 복음을 무시하면 엄청난 질병에서 저주스런 재앙으로 나라, 고장, 마을이 흔적도 없이 멸망 될 수 있다는것 명심하라.

그래서 이제부터 청와대, 총리실, 장관실, 각 부처, 국회, 정당, 도청, 시청, 시의회, 관공서, 군대, 병원, 검찰, 경찰, 소방, 방송, 체육, 학교, 회사, 각종단체, 모임 등.어떤장소든 사람이 모이는 이웃과 일터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면 화복과 사랑의 기쁨이 넘쳐 행복한 관계로 승화될 것이고 아무리 왕과 대통령, 지도자가 훌륭한 정치를 해도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대재앙이 될 수 있으나 함께 지도자 중심의 기도하는 국민이 될 때 행복하게 살게하여 죽어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각자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앞으로 큰 일도 할 것이므로 현 위치에서 기도로 성실하게 열심히 절약하고 친척과 이웃을 섬기며 살때 큰 인물도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낼때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큰사람 작은사람이든 서로 연합하여 땅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다가 부활하여 하늘나라 올라 오도록 보냈는데 인간의 탐욕에 악령의 마귀, 사단, 귀신의 종이되어 온갖 우상숭배를 하며 어디서 오고 사랑해 사후 어디로 부활하는지도 모른채 약한 나라와 백성을 침략해 노예로 삼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으면 강국이고 영웅으로 알지만 그것은 저주스런 마귀의 유혹이고 참혹한 지옥행이라 ☒? 하나님 영원한 진리의 인류 정책과 천국을 전한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 세 번째 여기 하나님 모습은 진짜 하늘과 땅을 이끌어 가시고 기쁘고 행복한 천국을 주시는 진짜 살아계신 신비의 거룩하신 하나님 모습이고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또 죽어서 갈 고향도 하늘나라로 전세계 모든 인간의 참고향은 하늘로 이 땅은 나그네 인생으로 여기 2000년전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후 하늘나라 그 증거로 성경책 창조주 뜻을 알려면 성전에 가서 목사[신부님,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창세후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인류역사와 사후세계 부활 영생에서 신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의 능력과 지혜를 깨우치게 될 것이다.

●●●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실제 존귀하신 모습이 보이셨는데 우리같이 남자 모습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희색빛 구름을 타시고 머리엔 3곳이 뽕죽하게 올라간 뽕죽이는 황금빛 왕관의 면류관을 쓰셨으며 근엄하신 모습으로 오른손엔 긴 지팡이를 잡으시고 입으신 흰 세마포 옷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고 광채가 번쩍번쩍 빛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를 이끌고 그 중앙에 환상적인 신비로 아름답고 무섭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서 하늘을 열고 오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참사랑의 창조주 "신"이시며 당신이 선교와 전도로 충성을 하는지 여러분 각자 행동하고 생각하는 선행과 악행의 뜻인지도 알고 지금 이 시대 독생자를 화목제와 변제물로 삼아 내가 세상만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나라 에덴동산에서 아버지의 성경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왔듯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인 양심의 움직임도 정확히 입력하시는 창조주 "신"의 세상 만인의 어려운 진짜 아버지시다.

지금 인간들은 내 생김새 외모와 재물, 환경만 봐서 무시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몰라 우습게 봐도 내 뜻이 아버지 뜻으로 여러분의 각자 신앙이 천주교, 전통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아니면 당신은 현재 지옥의 수감자 사형수로 "창조주" 아버지께서 창조한 당신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어 세상만물로 숨쉬고 먹이며 살려주는데 당신은 그 은혜를 배신한 악령의 종으로 시체가 임는 더럽고 피투성이 추한 사형수의 죄수복을 입고 생활하는 당신이라 보면 정확하고 성전에 출석하면 당신은 피투성이 옷을 세탁해서 흰 천사복을 갈아 입어 천국가지만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모습을 봐도 믿지 않는다면 세상 마지막날 임종하는 순간 공포의 지옥에 끌려갈 것이다....지옥에 온다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게 축복이다....지옥은 너무 참혹하니까.

옛날부터 인간적 탐욕에 물든 가짜와 사기꾼이 활개쳐도 정당화되고 악령의 가상적 생각에서 창조주 하나님 형상의 거룩한 사람을 원숭이로 비교해 인간과 닮았다고 원숭이가 인간들 조상이 아닐까? 하는 증거도 없는 진화론속에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면 당신의 존재는 원숭이보다 못한 인간으로 지금도 사람의 얼굴과 코, 눈, 귀, 입, 다리, 피부,혈액을 가진 원숭이가 있어야 증거로 그럴 원숭이로 현혈하고 장기이식 수술로 현재 병원에서 고통속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려야지 요즘 발전된 의학이 못 밝힌다면 말도 안되어 이전 알았으면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아 이 시대부터 후손들이 대대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육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린 진리로 창조론과 성경책을 교육시키며 새 생명의 교육을 가르쳐 개혁해야 될 것이다....인간은 불타고 사고와 재앙으로 죽고 몰락하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여 지키 (<http://www.mokpo.go.kr>)

.....  
과 누구나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무조건 순종해야 보호하고 사랑하나 교만하면 한 순간 죽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중심으로 교육하고 기도하여 하늘 축복도 쌓으며 새 생명을 받도록 가르쳐야지 악령과 사기꾼의 중들이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며 거짓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멸망시켜 결국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가족이 믿는 우상숭배를 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모두가 사기꾼이 되어 불행하게 살다 진짜 거룩하고 영광스런 신의 아버지도 모르고 참혹한 지옥행이 되는 것이다....그래서 방송과 컴퓨터를 발전시켜 인류를 복음화시킬 뜻의 섭리이며 인간은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피조물임을 명심하라.

내가 1996년 청와대로 보낸 성경책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일곱인으로 봉한책] 1650매는 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이었다."가 새 생명의 복음책으로 출판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비밀이 드러나고 그 속에는 앞으로 세워질 미래 전 세계 빛의 정책과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시작되어 새 희망의 자유와 평화스런 인류가 세워질 것이며 전세계 왕, 대통령, 정치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인 등.....전세계인이 한국에 구름처럼 구원받기 위해 몰려올 것이며 여러분이 구원받고 전하지 않으면 상급을 손해보는 심판이라 많이 자랑하고 선교와 전도로 전해야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자, 공주의 대접을 받으며 영광받는 최후 하늘나라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바로 뒤엔 50줄 정도의 짧은남자 천사들이 흰 천사복을 입고 모두 머리가 짧은 단정한 모습으로 끝이 보이지 않게 열병해 한사람 한사람 오른손에 번쩍 번쩍 빛나는 긴 창을 들고 회색의 구름을 타고 하나님과 오시는 그 거룩하심과 위엄을 인간 누구든 실제모습을 뵈는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든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나 공포스런 지옥에 들어갈 사형수의 범죄자나 마창가지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오시는 모습을 멍하게 보는데 옆에서 같이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자~ 오늘은 자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하나님께 빨리 감사다."

"네~에."

나는 그 순간 정신이 멍~해지며 그냥 하나님을 갈급하게 소원하던 기도를 올려 뵈게되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욕하고 목자와 교인들 비난했던 과거 죄악이 떠오르며 참회로 걱정만 되었고 빛으로 비쳐지는 마음이 보여 순간 봉사활동을 해서 죄를 조금이라도 더 용서받고 늦게도 가는 핑계로 예수님곁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수님, 저는 마을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 좀 전해 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며 뒷걸음쳐도 예수님께선 모두 알고 있었듯이 나에게 빙그레 웃으시며 내가 도망갈 것을 알면서 잠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 도망치면 달려와 나를 강제로 끌고 갔을텐데 그냥 미소로 웃고만 있어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선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각자 양심도 아시는 "신"이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깊이는 형용할 수 없으며 내가 예수님곁에서 도망쳐 들어간 마을은 거짓목자들이 죽어 천벌받는 지옥인데 대결같은 큰 기와집으로 된 마을이지만 죄인들은 모두 지저분한 검은도포 옷에 빼만남은 앙상한 시체같은 모습이며 긴머리를 풀어헤치고 모두 검은누더기 같은 옷에 짐승처럼 활동하고 있었다.

나는 선행을 하겠다고 이상한 마을로 들어왔지만 상황은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마을사람 모두 나를 보면 깜짝 놀라 두려움의 공포로 변하여 도망치는 마을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해괴하고 이상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도망치는지 외모를 돌아보는 순간 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내가 평생시 보통옷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옷이 입혀져 있으며 옷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구원의 복음옷이 입혀져 있었다.

예수님도 입지 않은 하나님과 똑같은 이 세마포옷은 바로 태초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독생자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창조하셨고 또 구원사역도 아버지 뜻의 성령받아 2000년전 예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 에덴동산에서 이 땅에 내려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박혀 창에 찔려 죽음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친아들로 한 분 밖에 없는 나와 같은 독생자의 영혼이라 내가 입은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입은것이고 나는 세상에 살아 몰랐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때가되어 모두 알려주어 전통기독교와 천주교만 하나님 자녀로 [왕자, 공주]빛의 천국에 사후 올라가는 이런 엄청난 비

믿을 독생자만 알려주지시지 세상 인간은 그 누구든 어떤 노력과 지혜와 힘과 도를 닦고 수행하며 애를써도 절대로 모른다.....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뜻을 받들어 독생자 주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의 세상부모가 2000년전 전생의 요셉과 마리아로 나보다 먼저 땅에 태어나 부모의 위치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 한국에 태어나 도구로 왔듯이 세상 육신에서 태어난 지금은 인간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도 되어 여러분도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어 하늘나라 가야 증거되지만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로 온 사람이 없어 오직 나를 통해 과거 종의 신분에서 이젠 아버지의 자녀로 승격되어 누구든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로 당당하게 서로 대접하고 받는 아버지께서 주신 인류 정책을 추진하여 미래는 행복한 세상에서 존중하고 협력하여 기쁨이 충만한 천국과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내가 2000년전에 왔던 나사렛 예수로 아버지 우편에 부활했다가 나를 십자가에 못박은 이스라엘 땅에서 촉대를 옮겨 한국에 왔고 그 땅에 저주를 내려 전쟁과 불안속에 살게 만들고 이 시대 한국에 다시 온것은 전세계인을 축복하고 평화롭게 섬겨 죄인을 구원하고 암흑의 세상질서를 올바르게 빛의 진리로 세워주고 또 아버지께 갚 것이다.

지금 이시대 한국과 북한. 중국에 태어난 백성은 전세계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간들 생각에서 세운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통일교, 대선전리회, 원불교, 여호와증인, 남묘호랑계교, 무당, 점쟁이 등.....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도 모두 죄악을 모르고 탕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국과 에덴동산에 구원받을 피조물로 세상의 모든 교주들은 진짜 새 생명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마로 결국 가정과 나라를 파괴하는 사기꾼으로 하늘나라 상급과 죄사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해방할 수 없으며 독재자와 교주들은 지옥의 죄악과 재앙만 불러 백성에게 고통과 죽음만 준다.

지금 오랜 시대를 걸쳐오며 천주교도 하나님 창조 의 뜻을 망각하여 인간들 잘못된 교리를 내세워 성직자를 독신으로 살게하고 고해성사로 죄짓음을 준다며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로 당신의 생각까지 아시는데 이젠 당신도 구원받은 제사장이고 자녀라 직접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직고 하여라.

해서 나의 육체도 전세계 만인을 위해 아버지께서 산제사로 받치라 하시어 인간적인 생각에서 싫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여 두개골, 눈, 코, 입, 귀, 뼈, 피부, 허파, 심장, 신장, 머리카락, 손, 툴, 발톱 등.....모든 장기와 사체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기증했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현재 하늘나라 의인은 현혈하고 제대혈을 기증해 고통속에 사는 환자를 소생시켜 새 생명을 주어 축복받기 바라며 또 의학발전을 위해 죽으면 썩어 없어질 아무런 쓸모없는 육체를 값진 축복받은 육신으로 세워주기 위해 실습후 화장하고 하늘로 오라시어 순종해 받치게 되었으며 여러분도 나를 따라서 현재 실천할 때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칭찬도 듣게 될 것이다....죽으면 낙원에 가는데 아무런 미련없고 이젠 행복하다.

해서 지구와 우주공간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태양, 달, 화성, 목성, 은하계의 우주를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고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등.....전세계에서 태풍, 폭우, 폭설, 가뭄, 비, 바람, 우박, 해일, 지진, 전염병, 사고 등....다스리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세계 모든곳에 임하여 하늘나라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일하고 있으며 지금은 말세라 악행으로 살면 이젠 심판의 때가 가까워 한 순간에 파괴하고 몰살시켜 지옥에 보낼수 있다는것 명심하라.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하신 요한계시록 19장 13.14절 말씀같이 내가 피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고 비록 내가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내 뜻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그 누구도 엄청난 큰 사람으로 명예의 영광을 주실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전에 나와 제자들도 참혹하게 죽여서 부활로 면류관을 내렸듯 지금도 복음전하다 순교로 죽고 하나님 때문에 옥먹으며 고통을 당하는 형제자매도 하나님의 영광이며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에덴동산에서 영생할 것이고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오신 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감격과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에 도취되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올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옷을 제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여 영광되길 바라고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영원한 생명이며 세상에서 전세계 유명인으로 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현대판 요셉, 마리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론,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요한 등..... 이 시대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을 이루고 이 시대에도 나와 활동한 자신의 이름들이 새 성경책에 기록으로 남아 영원히 후손들로 전해지고 나와 에덴동산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피뿌린 빛이 쏟아져 나오는 영생과 구원의 독생자 옷을 입어 저들 시체들이 피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나는 이집 저집을 다녀도 도망가고 숨어서 선행을 못해 안절부절인데 갑자기 30대 젊은남자가 머리를 단정히 짧게깎고 깨끗한 검은도포옷 차림에 단정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인사하며 반가운 말을 하였다.

"제가 마을을 안내 하겠습니다."

"아니?...누구십니까.?"

"네. 여기 거짓목자 마을책임자입니다."

그 젊은이는 이곳 거짓목자 마을책임자라 소개했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마을은 바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과거교인들 속여 악행속에 살던 거짓목자들 지옥이며 목자는 양들을 잘 보호해 모두 행복하도록 목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인 본질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공동체 헌금을 갖고 교인과 이웃의 구제는 하지 않고 자신들 호화호식을 위해 헌금을 쓴 그 댓가를 죽어 하나님께 심판받아 시체가 되어 참혹한 굶주림으로 짐승처럼 지내고 있는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쓴다면 영광의 면류관이지만 자신의 호화호식? 위해 헛된 탐욕으로 재물과 권력을 쓴다면 죽이고 파멸시켜 지옥에 분명히 올 것이다.

지옥책임자는 봉사할 집으로 가면서 길 옆 마을에 사는 거짓목자들 이집 저집 가르치며 그들이 세상에 살 때 교인들을 속이며 악행을 하며 생활했던 죄악을 설명하였지만 난 듣는듯 마는듯 오직 봉사할 집을 빨리찾아야 하는 조급함에 지나가는 말로 자세히 듣지도 않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선행도 못해서 빛는다면 인간적인 죄인이라 꾸중들을 생각이 두려워 솔직히 책임자의 도움을 청했다.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봉사활동 할 집좀 알려주세요."

지옥책임자는 뭔가 생각하는 눈치를 하며 한 집이 있다고 말해 기쁜 마음에 한걸 가벼웠으며 봉사활동 할 대상자를 갑자기 찾아도 쉽지 않았지만 한 집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몇 일전 이상한 사람이 손님으로 왔는데 책임자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곳은 거짓목자들만 죽어오는 지옥이지만 목자도 아닌 사람이 왔다면서 너무나 이상하다며 의아해 하는 지옥사자를 보며 나는 그 사람을 빨리 만나보고 싶었지만 인간은 아무리 높고 재벌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여기 지옥책임자를 보내면 잠자다 죽사하여 끌려올 것이며 가족들은 죽은 시체만 보겠지만 죽은 당사자는 그 순간부터 참혹한 지옥천벌이 시작 될 것이다.

나는 지옥책임자와 봉사할 집을 가던중 마을사람이 나와 시선이 마주치면 모두가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하는 그들 행동을 보면서 마을사람들 전체가 공포스런 분위기로 온통 비상에 걸린듯 하였는데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에도 겁이없고 아픔이 없는 영혼이면 저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공포로 떨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육체를 위해 살면 죄악의 지옥이고 사후 영혼의 하늘나라를 위해 살면 헌신과 봉사활동을 해도 기쁘게 살 수 있으며 하늘나라에도 세상 "육체"로 살던 사후 영혼의 "영체"로 살던 인간이 사는것은 땅과 하늘나라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 하늘나라에서 부모에게 잉태될 때 그 영혼에 육체를 덮입힌 생명인 것이며 땅과 하늘나라는 활동과 환경이 틀려도 사는것은 같은데 육체가 있다. 없냐에 따라 땅의사람, 하늘나라 사람으로 분류되어 사는 것이다.

"몇 일전에 온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몇 일전은 하늘나라 시간의 하루가 세상시간 1년이란 시간차이로 하늘시간 100일은 세상시간 100년으로 이는 내가 2000년전에 십자가에 죽어서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나도 하늘나라 시간은 6년정도로 짧은시간속에 하늘나라 하나님과 에덴동산에 함께 있다가 다시 하늘나라 범죄자 전세계 만인을 구제하고 구원하기 위해 땅에 내려온것으로 세상에서 사망하시 부처를 통해 정화하게 가르치다



부친께서 1991년 사망하시고 1993년 이곳 저쪽에 온 지금의 2년이란 기간이 몇일로 말하는것은 하늘과 땅의 시간 차이를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세상엔 대부분 인생이 3개월도 안되는 잠깐 여행왔다 영원한 하늘나라 본 고향으로 가는데 살인에서 지나친 허영적 욕심으로 주위 상처를 주고 사기치며 일터와 재물을 빼앗고 살인하는 악행을 하여 인생을 송두리채 망치는 것이다.

"어디 광산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곳 지옥책임자는 내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사는 집까지 찾아와 나는 가족중에 누구를 죽이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인간을 언제든 죽일 수 있다는 것과 이때 이곳 지옥사자는 내가 서원했던 기도를 허락하기 위해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고 하늘로 돌아간 뒤 천둥과 번개, 폭우를 내려 응답도 받았으며 당신의 영혼도 언제든 죽여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생활하는 집까지 이곳 지옥책임자를 보내어 확인시켜 주셨고 또 악질 인간은 언제든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명심하라.

인간은 죽음에 대해 한치알도 모르면서 젊다고, 부자라고, 늙다고, 건강하다고, 교만하면 한 순간에 자연재앙, 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 화재사고, 전염병, 질병, 지진, 해일, 불, 전쟁 등.....각종 사고와 재앙으로 회개할 기회없이 인생도 송두리채 빼앗아 인간의 현명한 생활은 항상 죽음에 대비하여 성전에 출석하며 죽음을 준비하고 생활해야 언제든 순간의 죽음도 기쁘게 죽고 황홀한 아름다운 천국을 갈 수 있으며 인간은 죽으나 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하심이 그 해답이다...여러분은 현재 살아있는 순간이 중요한 것이지 1시간후 영혼을 부르면 그 순간은 시체로 하늘나라 영혼이라 살아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라.

"혹시 도계라고 들어봤어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난 강원도 동해시가 고향이지만 부친의 교사생활로 월급이 적어 교직을 그만두고 제2의 집안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부친께서 맡아들러 생계를 위해 직업까지 바꾸어 도계에서 모두 안정하게 생활하던 도계라는 소리에 반가워 부친이 사망했다는 생각도 잊은채 혹시 삼척시 도계에 살 때 알던 이웃사람을 만날지 모른다는 마음에 흥분되었고 또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궁금증으로 책임자에게 물어 보았다.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고 왔어요?."

"술을 많이 마셔 술 때문에 왔습니다."

지옥책임자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술을 많이마셔 술 때문에 지옥왔다고 말해 술을 얼마나 마셔 지옥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에 술로 지옥간다는 말을 목사님이나 그 누구에게도 듣지못한 말이고 나도 술을 무척 마시던 인간이라 양심적으로 충격을 받고 궁금하여 "이름은 아세요.?" 라고 했더니 지옥책임자는 중얼거리듯 말하는데 놀라운 충격이었다.

"뭐라고 했는데.....최 과장이라 했던가?."

"이름이 어떻게 돼죠.?"

"이름은 최....뭐라고 했는데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옥책임자는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였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일생동안 살아가는 모든것이 하늘나라에 기록으로 남고 순교를 했는지 어떤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모두 영상으로 촬영하듯 인간의 세상재물은 없고 당신의 머리털이 몇개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깨우치란 것이다.

이 무서운 공포의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 세상과 하늘나라 만물의 영장인데 창조주를 배신하고 살면 그 재앙을 곧 볼것이라 인종, 사상, 이념, 지역, 나라, 외모, 직업, 직위, 학벌, 신분, 빈부, 귀천, 등.....차별도 말고 그 누구든 (<http://www.mokpo.go.kr>)

아들과 딸로 빨리 하나님 성전에 돌아와 거듭 태어나서 거룩한 새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 영광되길 바라고 우리가 현재 생활하며 살아가는 동안의 험담하고 우상숭배, 비난, 조롱, 폭행, 핍박, 사기, 도적질, 살인, 거짓말로 타인에게 고통과 상처주는 거짓말과 행동, 양심의 모든것을 기록해 죽어 하늘나라 갔을 때 최악대로 꼭 심판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옥책임자가 기록을 봐야 알겠다는 말에 빨리 부친인지 확인하고 싶어 부친존함을 알려주며 들어왔냐고 말하자 너무 뜻밖의 놀라움과 혹시나 하던 일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부활 증거와 천국과 지옥의 모든 사실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무엇보다 부친이 지옥에 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으로 떨리고 가슴이 저려왔던 것이다.

"아니. 그사람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지옥책임자는 부친성함을 말하자 너무 뜻밖이란 표정으로 의아해 하는것 같았지만 이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지옥에서 일어난 이 순간의 실제상황을 전세계인에 전하여 인류가 하나님 은혜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나는 지옥책임자의 말을 듣는순간 힘이 빠지면서 아찔한 순간으로 내 양심은 하나님께 꾸중듣고 때를 맞아야 할 죄인이지만 나에게 피뿌린 옷을 입혀 주시므로 이 상황에서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도 없고 다급함에 빨리 하나님께 말씀드려 부친을 에덴동산으로 보내달라는 간청을 하리라 다짐했다.

"아. 부친께서 술 때문에 지옥오시다니...."

나는 부친께서 잠시 손님으로 머무는 방에갔더니 흙색 새 장판에 얹은하늘색 새 벽지로 단장된 길죽한 좁은방으로 되었고 왼쪽구석에 부친께서 사망전 아파트 경비하실 때 들고다니던 하늘색가방만 덩그러니 빈 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는 당신이 죽으면 세상재물은 없고 오직 하나님 열심히 믿으며 세상에서 충성한 선행의 상급만이 에덴동산의 영생이란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지옥사자와 같이 방안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부친이 오지 않아 하나님께 빨리가야 하는 조급함에 마냥기다릴 수 없어 마루위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 주인에게 묻자 친구집에 갔을것이라고 말해 세상에선 부모와 자식관계로 생활해도 죽으면 친구관계로 부모 자식이 죽어 천국에 가면 동등한 친구요 지옥에 가도 친구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르며 나는 지옥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 조급함에 지옥책임자와 친구집에 갔더니 내가 온다는걸 알고 그 집에서 나갔다는 것이다.....5살 아이가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하늘나라는 세상 조상과 가족도 친구일뿐이다.

부친이 나를 피한다는 것을 짐작해 지옥책임자에게 내가 하나님 뵙고올테니 그땐 꼭 집에있도록 부탁하고 내게 피뿌린 독생자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부친을 낙원으로 보내달라는 간청을 꼭 할것이라 다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뵙고올테니 그땐 방에 꼭 있으라고 전해주세요."라는 말을 지옥사자에게 부탁해 놓고 책임자와 악수를 하고서 하나님께서 오신 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으~아~악~~하나님~~아~악~~살려줘~~예수님~~하나님~~아~아악."

정말로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해 달려가자 낭떨어지가 이루어졌고 밀엔 시커먼 죽은 강물이 흐르는 큰 강이 나오며 건너편 운동장 같은 연못속엔 불이 이곳 저곳에 솟아오르고 아랫쪽엔 온천이라 생각되는 곳에 펄펄끓는 물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과 발버둥치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였는데 오늘날 지금도 수많은 사기꾼이 사이비종교를 만들어 활동하는 교주들 같이 사기꾼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맹자, 나폴레옹, 히틀러, 북한 김일성주석 같이 지금 이 감춰진 하늘나라 비밀을 몰라서 죄악을 저지른 살인자, 정치독재자와 사이비교주 같은 사기꾼이 죽어 집합된 불지옥이라 우상숭배는 공포의 지옥으로 사기꾼 교주와 독재자를 추종하여 그 유혹에 사람을 살인하고 상처주며 악행으로 고통 준 죄악의 심판이다.....평심해라.

현재 세상에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신"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시며 지금 악령인 마귀, 사단, 귀신이 신의 흉내로 유희하고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같은 유명인이 만든 종교가 가짜의 신을 만들어 진짜인양 시대를 거쳐오며 자연스럽게 후손들로 전해져 오늘날 수 많은 신들의 흉수를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전세계 우상숭배와 독재자가 회개하여 돌아와 세상에서 씨를 말리고 고집하면 공포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나는 순간 불지옥 유희지옥의 시체들을 긴급구조 하실분은 하나님 뿐이란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새 예루살렘 성산

(<http://www.mokpo.go.kr>)

의 성전왕궁을 향해 뛰었지만 지금은 제자리 뛰기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며 인간은 누구든 하나님 성령 속에 죽고사는 생명이며 죽은 인간의 영혼도 한번 심판하면 그곳에 구속되어 지옥은 천벌이 끝나 새 생명 받기전엔 지옥을 절대로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부지런히 걷는데 갑자기 이뿐외모에 자색옷을 입은 날씬한 아가씨가 나타나 앞길을 막아서서 무작정 양식을 달라는 것이다.

"양식을 주고 가세요."

그녀는 아무런 이유없이 나에게 양식을 달라는 말에 좀 정신나간 이상한 아가씨로 생각되었으며 사고전에 많은 여자가 나를 좋아했듯이 당시 조금 잘생긴 외모와 착하게 보여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내 입은 옷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멋진옷을 입어 유혹한다 생각했지만 내 착각으로 너무 진지한 모습이었고 없는 쌀을 만들어 줄수도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 순간 도와주지 못해 무척 가슴이 아팠다.

"누가 양식을 갖고 다녀요?.. 집에 두고 다니지....."

이 아가씨는 하나님과 똑같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새 세마포 멋진옷을 입었고 예수님 피 뿌린 빛나는 새 생명의 독생자의 복음옷을 입어 하늘나라 양식인 새 복음을 달라고 했으나 나는 인간적인 쌀로 생각했던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세상살며 하나님께 탕자같이 살았지만 내게 태초로 준비하신 영광을 주시어 세상에서 온갖 범죄로 사는 만민에게 성령의 복음으로 죄 사함을 주고 전세계 죄인들을 에덴동산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새 하늘과 새 인류를 구원하는 운명을 주신 것이다.

"양식이 많다는것 알고 있으니 빨리주세요."

아가씨의 고집은 보통센게 아 니고 응고집으로 앞을 막아서서 무작정 하늘나라 양식인 복음을 달라고 재촉했지만 이것은 바로 내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 말씀 성령이고 성경책 창세기부터 인류역사와 예언을 교회에서 목사들로[목사님.신부님] 가르침을 배우고 성경책을 읽어야 성령이 임하여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죽어도 세상을 지켜보며 상급과 천벌을 기록하여 인생대로 마지막날 심판될 것이다.

이곳 보통지옥도 모두 하나님께 죄인이라 검은옷에 머리카락 풀어헤친 지저분한 모습으로 얼굴을 숙여 땅바닥만 보며 살았으며 앞을 보려면 구부정한 자세로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보는데 그 행동으로 구속되어 500년, 1000년 그 모습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 아가씨만 깨끗한 자색옷을 입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내게 이유도 없이 덤벼들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아가씨는 누구인데 무작정 쌀을 달라고 합니까.?"

아가씨는 나에게 약간의 미소띤 얼굴을 하면서 말해 주었다.

"저는 이 지옥마을 반장입니다."

난 그곳에서 아가씨와 말다툼으로 ~양식을 달라~없다~하면서 다투는동안 산비탈 오두막촌으로 이루어진 이집 저집에서 지옥사람들이 구름같이 들려 나오며 갑자기 골짜기 길이막혀 조금만 시간을 지체해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순간적인 지혜로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 큰소리로 고향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11조현금을 받아 그대로 정책을 추진하여 구제와 선교로 인류 만민이 축복되게 살도록 명령을 내리시기 위해 계획하여 놓고 전세계로 현금을 받아 지금 하나님 시킨대로 세상 사람들과 실천하여 구제와 구원속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성전과 지역에서 전세계 인류를 건설하라 하신것이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갑니다?."

(<http://www.mokpo.go.kr>)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 사정을 잘 말씀드려 양식을 주신다면 양식의 반은 [50]% 우선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리고/ 양식에 반은 [50]% 성전과 큰 도로를 내어 마음껏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해 주세요?."라고 모여드는 지옥의 시체들을 향하여 고함쳤던 것이다.

나도 항상 기도속에 생활하고 기도로 응답을 받듯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에서 기도로 생활하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의 중심까지 헤아리고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서로 중보기도를 올리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성령을 주시어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날 것이며 죽어가던 사람도 서원 기도로 합당하면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선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양식으로 기도하며 봉사하고 행동하는지 모두 아시며 뻔히 내려다 보시고 기록한다는 것이고 종교를 초월해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충성하라....누구를 통한 기도로 살았든 죽음에서 살고 치유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할 사명이 있어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다.

내가 순간적인 지혜로 그냥 머리속에 떠오르는 대로 고함치고 생각해도 내가 소리친 말이 믿을 수 없이 그렇게 멋질수 없었고 이런 지혜로운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것도 아버지의 능력이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존재도 없고 숨도 못쉬는 인간인데 내 자신도 놀라며 호렷했던 것이다.

해서 내가 구름같이 몰려드는 지옥의 영혼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치자 서로 환하게 웃으며 서로서로 길을 열어주기 바쁜 데 진실로 저들의 썩어지고 두려워하던 표정이 변하더니 내가 자기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듯이 해맑게 웃으며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 넘쳐 부드러운 환한 얼굴에 빛이 나고 있었으며 앞으로 한국에 전세계 왕과 대통령에서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문화인, 체육인 등.....구름처럼 몰려와 교육받아 그들이 자신들 나라를 구제하고 구원하여 축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소리친 이 말은 바로 저들의 진리고 이 시대 구제하고 구원하라는 새 생명의 복음으로 이것은 각자가 운명적 은사를 받은 사역이 있듯이 내 운명은 구원자로 이 시대 왔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충성해야 될 것이다.

해서 국회의원도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적인 목자를 추대하여 여당, 야당의 정당없이 합심하여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의원도 청렴하게 활동한 만큼 칭송받아 존경받는 의원이 돼야지 악령이 좋아하는 근본적 분열의 권력형 정당정치는 국민의 고통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부추키는 여당, 야당이란 집단적 대립을 피할 수 없어 생산적 국회를 위해 변화하는 국회로 수술하여 새 부대로 담아 오직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회로 세울것이고 양심있는 정치인은 국민이 고통당하면 좋은차, 좋은웃, 좋은집에 생활해도 양심적 미안함에 스스로 반성하여 선정을 해야 될 것이다...시대가 흐르면 정치인은 역사에 재 평가를 받아 그 후손까지 출세하는데 상급과 불이익이 주어질 것이다.

◆ 내가 새 이름을 받을 때는 교문팻말에 연세대학교란 글이 적혀있어 입학하여 졸업시험 때 시험을 몰래보다 천사선생께 발각되어 시험지를 빼앗겨 졸업을 못할 입장인데 한 남학생이 졸업하러 가자며 끌려서 도착하자 그 장소는 "서울대학교졸업식장"이란 현수막이 걸렸으며 그 남학생이 봤는데 나도 상장이 있었다고 귓속말로 해서 나를 조롱한다는 판단에 마음편하지 않았지만 졸업장에 왔으니 구경이나 하자며 기다리자 그곳은 하늘나라 구름위로 천사의 선생님께서 주시는데 첫 번째 상받는 학생은 최고상을 주면서 상장과 졸업장까지 주었는데 그 분은 바로 하나님 뜻을 완성하고 죽어 졸업장을 받은 하늘로 올라가신 첫번째 2000년전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였다.

이것은 요즘 학생들 성적에 상관없이 하나님 열심히 믿을 때 큰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과 바락엔 동그라미 속에 시온이란 글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북한 평화통일 시온의 국호와 국기를 보여주시고 북한김정일도 내 뜻을 거역하면 주위 의인에게 암살당해 죽어 하나님께서 평화통일된 하나님의 나라 국호를 시온으로 짓고 전세계 각 나라로 가족이 함께하는 일터의 선교지로 남,북한 백성을 파견하여 정의와 사랑으로 전세계 인류 만민을 섬기며 통치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성실상" 하면서 한국의 내 이름을 불러 나가면서 우등상 같은 공부와 상관없는 상장이고 그동안 사고 후 불편한 육체로 조롱과 피박속에 온갖 소리를 들으며 피눈물로 생활한 노력을 보시고 학교공부는 끝까지 하며 졸업시험도 몰래보다 들켜도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며 피와 눈물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된 인생같이 성실하게 살아온 노력을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주시는 위로의 상장이라 생각하여 마음편하게 받으며 상장만 주고 졸업장은 없어 졸업장을 달라고 하자 내 졸업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다음에 찾아서 준다고 했지만 이것은 이 시대를 구제하고 구원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고 죽어서 받을 졸업장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 "시온"과 예수님의 한국적 새 이름을 받아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새 이름인 내 이름으로 받게 되었으며 내가 2000년전에 십자가에 못박힌 아들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각 분야 국민과 만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전세계 전통기독교, 천주교로 11조 헌금을 받아 각종 사업과 기업으로 1달에 1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아버지 주시는대로 받아 성전과 사택을 지어 무료로 보급자리를 만들어 주고 우물을 파서 생명수를 주며 양식을 공급하고 공장과 사업을 하여 자연환경 개발과 의료에서 각 분야를 발전시켜 그들이 기쁘고 부족함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나의 동역자로 선교와 전도로 죽어 지옥가는 악령의 자식들을 성령의 하나님 자녀로 구제하고 구원하면 세상 마지막날 하늘나라에 가면 "수고했다며"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칭찬받아 좋고 이웃에게 존경받아 좋으며 세상 마지막날 에덴동산 왕궁에 가는데 더 이상 영광이 없을 것이다....미래 한민족은 전세계 한 나라당 10-100만명이라도 가족을 동반한 단기든 장기든 선교지 일터로 나가 각 분야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등.....가르쳐 구제하고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 의학의 의술과 의학품에서 건강식품 같은 유익한 개발을 해야지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낭비적이며 위험적인 살인무기, 우주개발, 전투기, 항공모함, 탱크, 지뢰, 총 등.....살인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신개발은 낭비로 자유와 평화를 빼앗는 울무가 될 것이며 그 누구나 편안하도록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면 범죄를 시켜도 안해 이전 함심하여 인류 생명인 의료와 자연환경 살리기, 건강운동 등.....악한 정치에서 문화와 개발은 철폐하고 행복한 건강복지로 모두 자유롭게 편안하게 서로 하나님 주신 재능을 베풀고 나누어 참사랑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성령을 내리신다.

그리고 나는 이 말세에 구원하고 하나님께 갔다가 또 다시 2000년-3000년후 말세가 되면 만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하늘에서 땅으로 보낼것이고 나는 땅에 내려와 새 성경의 예언과 아버지 뜻을 이루고 하늘과 땅을 왔다갔다 하며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과 나는 죽으나 사나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겨 빨리 볼지옥, 유허지옥 사람들 시체라도 건져야 하는 인간적 생각에 마음이 급했으나 볼지옥 영혼은 타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난 죽어 아버지께 부활했다가 영원히 하늘과 땅을 왔다갔다 하며 말세를 오가며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난 보통지옥에서 하나님으신 새 예루살렘 성전가는 길은 좁은오솔 ? ☒? 옆엔 가시나무가 우거지고 언덕을 오르는데 땀도나서 하늘에 사는것이나 땅에 사는것이 똑같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성전 올라가며 알았고 과거 하나님을 믿기전엔 내가 무엇이 돼는지, 새가 돼는지, 꽃이 돼는지, 물고기가 돼는지 짐승이 돼는지 죽음의 세계가 궁금했으며 여러분도 전혀 모르고 생활하였지만 이전 부활을 분명히 전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잠을자다 꿈을 꿀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당신은 꿈을꾸고 깨어나지만 죽은 인간은 생생한 현재와 같은 환상의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는게 죽은 영혼의 세계이며 인간이 오래살아야 100년이면 하늘나라는 100일도 4개월도 안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감사함도 모르고 인간의 탐욕과 헛된 우상숭배로 참혹한 지옥에 오는 공포의 실제상황이다.

나는 하나님으신 성산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자 성문이 3개인 성전이 나왔는데 성전 길이는 50m정도며 성벽의 담 높이와 지붕 높이가 30m정도의 똑같은 정사각형 네모로 된 태어나 처음보는 이상하고 신기한 알은 검정색의 진주같은 성벽의 성전으로 성경책 요한계시록 21장 10-27절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깜짝 놀라게 되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하나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동.서.북편에 세문씩 있고~그 성은 지붕 높이와 성벽 높이가 똑같아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태어나 처음보는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성문앞엔 큰 자동차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같은 모습으로 쌀가마니를 옮겨 싣었으며 큰모자를 쓴 우락부락하게 생긴 지옥책임자가 채찍을 들고 그들을 감독하며 강제로 일을 시키는게 보였는데 지금 쌀을 싣는 이 양식은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날 운명과 동시 사망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받을 천국의 상급이며 하늘나라 새 복을 이 될 것이고 내가 독생자로 인류만민의 죄를 대신해 대속물의 피눈물 고통속에 하나님 권함을 받아 이제 새 생명으로 새롭게 구원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어떤 시대인데 저토록 노예같이 일을 시키고 저 사람들은 바보들인가.?"

이들은 모두 상체는 옷을 벗고 성전안 쌀가마니를 어깨에 매고 대형자동차에 옮겨싣는데 이 영혼들은 세상에서 게을러 (<http://www.mokpo.go.kr>)

일하기 싫어하고 부모들로 재산을 상속받아 도박을 하며 고행을 한다며 노력과 일도 하지않다 죽어 천벌로 천년이든 쌀 가마니만 옮기는 천벌을 받은후 죄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으로 다시 세상에 올것이라 이젠 성전을 통한 공동체로 공존공생하는 평화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왕궁에 오도록 나를 땅에 보냈으며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사는 나그네 인생으로 육심내면 죽을 것이며 본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현재 세상에서 높은직위를 받고 부자나 인기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 주위와 전세계 굶어 죽어가고 어려움과 고통속에 생활하는 빈곤층을 찾아 도와주고 베풀주면 죽어서 받을 본인의 축복으로 하늘나라 보물도 저축해야 땅과 하늘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사랑해 이곳 황홀하고 아름다운 왕궁에 오겠지만 그 누구나 교만하면 멸망과 죽어 지옥에 올 것이다.. ..나는 빨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감독하는 책임자에게 다가서자 내게 정중하게 허리굽혀 인사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불러서 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저기 왼쪽 세 번째 성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는 지옥책임자 가르키는 중간성문을 지나 왼쪽 세 번째 성문에 와서 열려있는 안을 들여다보자 마당엔 작은꽃밭에 석류나무도 있고 채송화. 봉숭아 같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으며 나무 마루가 놓여지고 흰창호지 미닫이 문이 세계씩 있는 중앙방문 앞 마루엔 20대 여자 천사들이 양쪽으로 7-8명씩 양손을 배 아랫쪽에 대고 다소곳이 고개숙여 죽은듯 서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손에 장부같은 것을 들고 바쁘게 하나님 계실것으로 보이는 중앙방을 들락거리며 열심히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지 않았지만 성전안에 들어가려면 문지기에게 알리고 들어가는게 순서인것 같아 경비실로 가자 우락부락하게 생긴 외모에 큰 덩치로 우직한 문지기는 나를 기다고 있었다는듯 미소띤 얼굴로 내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난 예수님도 성전안에 계셔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성전안을 향해 발길을 옮기자 경비는 무척 겁에 질린듯한 어색한 몸짓을 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황하여 내 앞을 막아서며 안절부절 하였다.

내가 죽음속 신비한 부활의 하늘나라를 자세히 전하는것은 인간은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으로 지금까지 내가 전하는 말은 추리소설 같은 생각에서 나온것을 전하는게 아니라 이 복음은 내가 구름위에 올라와 창조주 아버지 신의 능력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실제상황을 고백하는 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만인이 죽어서 사후 심판될 하늘나라 모든 사실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다.

"여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사자가 내 말을 잘못듣고 성전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고 생각해 다시 알려주며 말해도 못 들어간다는 말만 되풀이해 답답하고 나의 진실을 몰라주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여기 새 예루살렘 성전은 오랜세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시대가 흘러오다가 이 시대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도 성전에 출석해 하나님께 충성하면 세상 마지막날 죽어 창조주 "신" 아버지의 왕궁에 인생승리자로 초청되어 영생하게 될 것이다 .

"아니. 난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린 하나님 명령없이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완강하게 들어갈 수 없다고 고집해 답답했으며 말도 통하지 않아 그곳에서 경비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2000년전 십자가에 처형된 독생자 예수로 이제 부활과 영생에서 천국과 지옥이 증거된 실제상황이고 여러분도 부활과 영생하는 증거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태초로 준비된 구원과 하나님 실제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으나 이전 믿음의 축복으로 그 누구나 죽어 부활 할 하늘나라는 최고의 상급인 황홀하고 아름다운 에덴동산과 의인천국, 보통천국의 평화로운 빛의 3가지 천국이 있고 여기 기록하지 않은 피투성이로 천벌받는 우상숭배 지옥에서 간음지옥도 있고 또 표적의 기적은 엄청나게 많지만 기도로 폭우를 멈추고 내리며, 악령을 혼내주고, 인류 대재앙의 예언을 받으며, 영생의 권한을 받고, 남,북한 평화통일 예언을 받으며, 어린시절 무방비 상태에서 아생호랑 꼬리뒤에 오줌누던 사건, 거짓목자마을 지옥책임자가 현실의 집까지 와서 천둥, 번개, 폭우로 응답받으며 하나님 뜻의 가르침을 받던 사건, 능, 어촌 아름다운 정책 등.....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며 지금도 하늘나라 왔다갔다 하며 새 계명을 받고 기적의 체험을 겪은 표적의 실제상황으로 지금까지 본 하늘나라 어떤 지옥이든 여러분이 구경한 부활의 하늘나라 지옥은 진짜 당신이 저주의 그 사형수가 될지 모르는 소름끼치는 지옥이다...현명하게 죽음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늘나라 진짜 영광스런 빛의 에덴동산 왕궁의 왕자, 공주의 축복으로 영생할 것이다.

"이봐요, 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지기와 성문앞에서 큰 소리치며 다투자 성전마루에 있던 아가씨천사가 마루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여 나는 이제야 하나님을 뵈려 성전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며 천사의 말을 기대하자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뜻밖의 말을 해서 무척 서운하고 마음이 텅빈 공허함에 고통받는 지옥의 저들을 생각하자 가슴이 아파오고 미칠것 같았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시랍니다 그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간 예수님도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도망친 입장에서 할 말도 없었고 성전왕궁의 문지기도 다음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서 오늘 당장은 하나님을 뵈지 못해도 거짓목자의 지옥에 오신 부친에게 갔다가 내일을 뵈 수 있으니 다시온다고 생각하였지만 이것은 세상 마지막날 성경을 완성하고 죽어서 부활로 들어갈 성전왕궁이란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전 여러분은 각 사람이 어떤 종교에 다니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창조한 하나님 형상인 신의 아들과 딸들인데 악령의 속임수에 속아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인간이 돼버린 것이며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우와 지진, 해일, 산불화재, 매를, 테러 등.....그 지역의 우상숭배에서 범죄를 저지른 인간 타락의 심판임을 깨우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다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고집하면 쓰레기처럼 취급해 멸망시킨 것이다...명심해라.

이 성전의 방은 하나님과 독생자만 사용하는 방이며 나는 권력이든 재물이든 악한 거짓말과 악자를 이용하여 부유하게 살며 고통주는 인간적 양심없는 악질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땅에 생활하는 인간이라 왕궁에 들어가면 죽어 세상에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완성한 다음에 죽어서 갈 언약을 주신것이며 이 성전은 곧 황홀하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 이사 할 새 예루살렘의 왕궁인것이다.

해서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 남,북한 평화통일 된 시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증거로 여러분은 이 영광을 상상도 못할 것이며 내가 성전안에 들어가 다니며 자세하게 못봐도 하나님과 어린양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친아들은 독생자 한 분이지 두 명이 아니며 여러분도 당신의 영혼으로 하늘에서 살아가며 그러하듯 독생자는 영원한 독생자로 이 시대 성경책의 예언을 이루어 전세계 만민을 구원하고 죽어서 새 성전 왕궁에 오라고 하시며 내가 부활로 아버지께 올라가야 내 본분과 위치를 찾는 길로 믿음의 형제 자매도 영광스런 빛의 새 생명이 될 것이다.

내가 성전의 안은 못들어가도 세상인간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내가 문을 들어서면 그 순간 죽은 시체가 되므로 틀여가지 못해도 그때서 죽으면 그때 성전이 사비지께 특사가가는 어야방구 세상에서 성경책이 사비지 뜨음 드드 완성  
(<http://www.mokpo.go.kr>)

비기적 세계로 보내진 죽어있는 그 배 안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단거리 계승에서 오거리 아버지가 죽어 오한 다음에 오라 하시는것은 죽고 사는 모든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함을 깨우쳐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전의 왕궁에 죽어서 오라고 하신다.

누구나 언제 죽을지 한치앞도 모르는게 인간이라 나에게 아버지 뜻을 모두 이루고 죽어오면 그때 성전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아 오늘 저녁은 부친을 만나 하늘나라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로 하루밤 지내고 내일 다시 온다는 각오로 성전을 내려오는 도중이었다.

그런데 큰 은혜가 내렸는데 어찌된 것인지 오솔길이 사라지고 성전과 지옥을 잇는 넓은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며 성전앞에서 쌀을싣던 똑같은 대형자동차에 쌀을 가득싣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앞 그 자동차가 보였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신나게 흔들고 올라가는 것이다....이것은 보통지옥에서 죄인들과 약속한 큰 도로를 내어 양식을 마음껏 갖다 드린다는 고향친 약속을 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심을 알았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 뜻에 충성한 사람이 죽어 첫번째 성문으로 들어가면 에덴동산으로 이사해 새 예루살렘 왕궁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전에 에덴동산에서 살았듯이 여러분도 죽어 왕궁에 오면 아담과 하와가 되어 태초같은 에덴동산 편류관의 혜택속에 진짜 아버지와 에덴동산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보통지옥 처참하게 굶주린 사람들과 고향친 사실이 생각나며 하나님께 말씀드려 양식의 반은[50%] 우선 굶지않게 생활하도록 무상으로 나누어 드리고 현금[50%]는 큰 도로를 내어 [기업] 수익금으로 양식을 풍족하게 맡겼다고 드린다는 생각이 나며 하나님께선 내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 생각의 모든문제를 지금 지켜보시며 성취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에 영웅심과 군중심리로 행동하지 말고 본인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행동하고 기도해서 지금 처음엔 각자 뜻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서운하고 불만이 많아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므로 그 결과는 지나봐야 알고 종교인과 정치인도 역사가 흘러야 애국자. 간신배. 독재자의 가짜와 진실이 밝혀지고 정체가 드러나듯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므로 그 영광을 알게 될 것이다.

해서 하늘나라에도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아버지의 특권으로 저를 영혼이 해방되었고 지옥에서 죄사함 받아 자유로운 영혼이 된 사실을 믿어 현재 여러분 가족중에 불신에서 살인자에서 원수된 범죄자로 살다 죽어 어떤 지옥이든 간 여러분 가족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마라....나를 통하여 하늘 지옥에도 새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되어 너희 가족과 조상들도 세상 죄악을 씻어 모두 새 옷을 갈아입고 새 하늘나라 천국에 갔다.

그래서 인간의 요섭 부친도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오신 운명이라 내가 불의사고로 인하여 부친에겐 세상 불효자로 살게 하였지만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태초로 계획한 복음을 이루기 위해 하늘나라 최고의 성공자로 부친을 에덴동산 하늘낙원에 보내주심을 믿기에 잠시 손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다,

그래서 내려오던 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오신 새 예루살렘 왕궁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 올렸다.

"아버지여 제가 희망하던 모든것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땅이나 각자 죄악에서 나를 통하여 인간과 나를 하나님의 중보자로 삼아 구원하는 영생으로 천국에 지옥에 갈 당신을 천국에 인도하고 죄악의 천벌을 해방시켜 죄사함을 줄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믿던 믿지않던 새 이름으로 다시 독생자의 운명으로 세상에 내려온 나만이 천국의 영생이다.

또 아버지께서 보시고 충성하는 예쁜자는 최고의 상급으로 젊으나 늙어도 순교를 시켜 에덴동산에 부르고 목사님. 신부님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앙인은 사고나 어떤 모습이든 지옥같은 세상에서 죽어 에덴동산에 부르는데 당신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좋은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일찍 순교하고 어떤 질병과 사고로 죽으면 죽은 모습만 봐서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저 왕궁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 봐라 어떤 교주와 인간이 하늘나라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려 살아계신 창조주의 뜻을 알까??...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땅의 재앙과 죽어 참혹한 지옥이다.

세상엔 시대가 흐르고 새로운 문화로 세계가 변화되듯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거침없이 내려칠 심판의 때가 임박해 나를 통해 예언을 먼저 주심이라 지금부터 하나님 배신하고 범죄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기독교. 천주교로 가서 회개로

(<http://www.mokpo.go.kr>)



귀속하고 개종해 하나님뜻에 따라 협력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이 온 인류 땅끝까지 임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듯 아담, 하와를 생각해 혼자서 땅에 생활하는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신부, 수녀, 불제자, 무당, 독신자 등.....인간을 생각에서 만든 교리로 성직자가 독신이면 이전 새 계명으로 결혼하여 부부 중심의 가정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였고 나도 결혼했다가 아내와 많은 문제의 깨우침으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했지만 자식이 있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혼은 자식과 가족 모두의 고통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찾아 서로 노력하라.

나는 혼자살면서 이제 또 다른여자와 창조의 뜻을 받들어 재혼하라 하시며 이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언젠가 새 배우자를 맞이하여 나를 도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를 언제 보내실지 모르나 독생자도 창조의 뜻을 받들어 함께 하고 에덴동산 왕궁에 갈 배우자와 재혼을 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도록 해서 예비시킨 배우자를 보내시리라 믿고 난 세상에 태어나 내 의지와 생각대로 살지도 못하고 성경책 예언대로 살았고 죽을때까지 복음을 완성하고 미래 새 복음을 완성하고 올라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전 성직자에서 그 누구든 독신으로 혼자살면 하나님 뜻의 아담과 하와 인간 부부로 최초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 세상을 번성시켰듯 창조하신 본질을 깨우쳐 혼자살면 새 계명에 불순종이라 부부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려면 부부가 자녀를 선물받아 행복하게 살면서 동역자로 하나님께 영광들려야 될 것이다.

이곳은 시종드는 여자천사 외에 하나님과 천아들 방으로 메시아를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죽어서 갈 왕궁이라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어 고통스러워도 인내로 극복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더욱 크게 쓰실려 하니 기도로 극복해라...자살하면 그 순간부터 빛도 없는 참흑한 지옥행으로 끝장이다.....당신과 우주만물이 아버지의 창조물로 주인은 하나님이라 자살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인류만왕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지역, 행복한 국민, 행복한 인류를 세워 악령의 범죄가 사라져 천국과 같은 천년 인류 새 땅을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이전 새 이름으로 새하는 영광과 새 땅의 축복이 되는 새 생명 낙원의 영생을 위해 기독교 천주교로 개종하고 귀속해야 보호될 것이며 또 인류속 기독교, 천주교는 11조현금을 받쳐 내 이름으로 현금 50%는 구제와 사회복지로 쓰고, 현금 50%는 세상 기업을 인수하여 진실된 믿음의 공동체 기업에 투자되어 11조 현금은 한국과 북한 세계 어려운 나라로 쓰여져 모든 인류인이 걱정 근심없이 사는 행복한 천국의 기업들로 개혁해 갈 것이다.

또 인류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명과 모든 행복이라 철저히 살리는 운동을 지역별로 하고/ 정당 없이 자유로운 민주화로 주민과 의원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체 의정활동/ 지역감정 사라지는 평화정치/ 봉사하는 정치/ 평등한 인권사회/ 장애인, 노약자 서민이 우대받고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평등사회/ 외국인인 한국에서 차별없이 보호되어 평등하게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

남,북한 협력하여 함께 평화통일로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 서민 무료주택 공급, 무료병원, 평생 무료교육 [주택, 병원, 교육] 3가지 복지는 기본 복지로 그 중에 환자를 생명을 직접 다루는 무료치료는 고귀한 인간 생명이 돈없어 죽어가는 환자는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집도 1채이상 소유하지 말고 2채이상 소유주는 집을 팔든 집없는 천천에게 주던가 성전에 헌납해 성전을 위해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집없는 가족을 선별해 무료로 나눠줘라.

그리고 매년 장마나 폭우 자연재앙으로 고통받던 재해가 사라지는 국가, 튼튼한 건축물로 인간 생명이 보호되는 안전사회 건설/ 학교 교육을 인성 위주로 정의와 효행속에 자녀 재능을 조기 발견해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오직 전문교육이 각 분야에서 성공하여 전세계 영향력을 주는 성공자로 세우고 / 한국어를 세계어로 빛내어 사용하며/ 하나님나라 성물인 한국의 농산물, 식품, 제품이 세계로 뿔어갈 것이고/ 자연과 동물,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 환경국가, 지역특산물 농장화로 공동재배 및 가공하여 직거래 위주로 공동체 판매와 안전하게 먹고 마시는 먹거리 문화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서 악법을 개헌해 모든 국민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헌법제정/ 새 시대 새 생명의 용서하는 사회/ 단결로 남,북한 전세계 만인이 협력하는 인류 대화합의 국가/ 인류를 이끌어 가는 평화정치/ 재산 상속이 사라지는 사회/ 화장, 수목장 장례식 정착으로 산 사람의 살아있는 땅/ 아름답고 정직하게 사는 건강한 사회/ 마약, 술, 담배에서 폭력없는 건강한 사회/ 세계 각분야 해외로 진출해 젊은실업자가 없는 전세계인이 부러워하고 그들로 존경받는 남,북한의 하나님의 백성

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고통은 축복이 될 것이고 개혁엔 항상 고통과 분열이나 결국 국민을 위한 개혁은 영원한 축복이다.

하늘나라 에덴동산 [낙원]

이곳 낙원의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최초 인간을 만들고 그 짝이 없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배우자로 만들어 이곳 에덴동산 살도록 했지만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에 쫓겨난 에덴동산이다.

내가 이곳에 구경할 당시는 1981년 군에 제대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그해 10월 큰 열차사고를 순간적으로 당해 두개골이 함몰되어 경추에 금이가며 식물인간으로 의식을 잃었고 1분도 안되는 순간에 난 이곳 하늘나라 에덴동산에 올라 있었는데 보통천국과 의인천국은 발이 있어 일해서 양식을 받지만 에덴동산은 잔디로 이루어지고 발이 없어 일도 하지 않는 황홀한 실험터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각오와 행동으로 생활하는지 하나님께선 지금 당신을 내려다 보시며 생활속에 죽음의 길과 축복의 길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 믿음의 충성과 기도와 찬송, 선행이 당신을 죽이고 살리는 마지막날 심판의 천국과 지옥이 될 것이다.

나는 우주만을 창조하기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독생자 아들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구원자로 구제의 사명도 가지고 땅에 온 사람으로 나를 외모로 판단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믿고 따르므로 내 새하늘 이곳 낙원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며 세상 어떤 종교의 교주와 지도자, 목사, 유명인도 천국과 지옥, 에덴동산의 열쇠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에 새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전한다....그래서 세상교주는 모두 더러운 악령의 종 [마귀, 사단, 귀신[잡신] 살인마로 전세계를 파멸시키는 재앙의 원흉이다.

비록 내가 교통사고의 운명에 징계의 채찍을 맞아 피를 토하는 고통속에 살아온 것이 내 죄악의 저주로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 했었지만 그것은 성경책 예언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전세계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징계하여 당신 죄악의 전벌을 대신해 지금 이 시대에도 나에게 십자가 저주스런 짐을 지도록 해서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피 흘림, 눈물, 엄청난 고통으로 살게 하셨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구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눈물] 피로[고통,피흘림]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하나님]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찌나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천국, 영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지옥]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요한1서 5장 4절-12절까지 말씀하시듯 이 성경책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이며 내 말은 곧 만인의 목숨인 새 생명으로 지옥과 천국의 재판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곳 낙원천국 본대로 구경시켜주는 것으로 하늘나라 에덴동산은 세상에서 죽어 각자 스스로 찾아가며 구름위 무지개 등글지나 다리를 건너 하나님계시는 마을로 푸른잔디로 이루어져 길이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인 황홀한 믿음속에 삼국 정국이 구름위 푸른 구름 구슬이 있고 진한 정경이 있는 기묘한 비의 삼국을 위한 정은 2021

와 정글인 마음속에 살고 장애와 굶주림 폭력, 고종, 구축이 없고 외란 사체가 없는 거룩한 빛의 강림을 받아 읊은 ZONE 왕자와 공주로 아버지와 생활하는 영화로운 에덴동산에서 나와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곳 무지개 구름둥글만 들어서면 최악의 생각자체가 사라지고 마음이 형용 할 수 없는 벽천 황홀함에 내가 인간으로 한번도 느끼지 못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함에 도취되었던 그 황홀한 기억을 생각해도 지금은 거치장스런 육체의 인간이라 눈으로 보고 머리에 박힌 세상일이 떠올라 그런 신비스런 아름다운 경치와 영롱하고 황홀한 행복감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순간과 비교하면 지금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쓰레기통에서 허우적거리는 환경과 마음이라 보면 정확하고 구원되면 죽음이 행복이다.

내가 동굴 안에 들어오자 너무나 활활한 마음과 경치가 눈에 들어오며 넋을 잃고 멍하게 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한번도 구경을 못한 장소라 나는 땅으로 생각하여 이곳을 알아 빨리 이사해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이곳이 하늘 나라 낙원의 에덴동산인지 생각하지 못했고 아버지와 에덴동산을 생각하면 빨리 아버지뚝의 사명을 완성하고 세상을 떠나 죽어서 에덴동산에 빨리 오고싶다.....내가 땅에서 오래 살수록 인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며 내가 아버지 우편에 올라오면 그 댐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함께 재판장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사하여 산다는것은 바로 나와 일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다 순교하며 고통받는 양들에게 구제로 선행을 넘치게 한 목자나 성도들이 죽어 부활하여 받는 최고의 하늘나라 상급으로 새 하늘 새 이름으로 오르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특권을 주시어 여러분이 믿든 믿지않던 나를 통하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이곳 낙원의 에덴동산에 오지 못할 것이다.

낙원천국엔 한국의 대결같은 큰 기와집만 있었고 마을 중간에 2층 기와집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으로 생각 되었으며 푸른잔디에 길이 없으며 각종 꽃나무가 아릅답고 흰 비둘기와 이름모를 새들에서 흰양과 내가 기르던 양고라 토끼가 올라와 있으며 우측 연못엔 연꽃이 아릅답게 피어 환상적인 경치와 영생의 물은 생명수로 바닥이 현히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하였다.

마을뒤엔 하늘을 찌를듯이 뻗어있는 소나무가 무성하고 마을옆엔 동굴이 있었으며 많은 천사들이 길게 줄을서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것이 보여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 깨우쳐 생각하니 그 천국낙원의 천사들도 하나님 뜻과 사명을 완 성하기 위해 암흑 세상에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해 내려오는 나의 동역자가 될 천사들이란 것을 알았다....지금 전세계 곳곳에 성령과 천사들이 악령의 줄개들을 죽이고 박살내며 새 땅을 준비할 것이다.

낙원천국의 천사들이 말세를 대비해 하나님 뜻인 나를 받들기 위해 인류에 생명받아 어느곳 태어나기 위해 내려 온다는 것을 깨우쳤고 하늘에 있던 의인천사들도 모두 세상에 내려온것은 내가 하늘나라 의인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였던 것이다.

천국 낙원엔 모두 젊은이만 지냈으며 서로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정말로 행복하게 보였고 나는 한번도 볼 수 없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멍하게 구경하였고 그 순간 세상이라 생각해 어딘지 알아 이사할 것이라 생각하는중에 갑자기 24세 정도의 흰 천사복의 이쁜아가씨 천사가 나타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서 나를 향해 무작정 빨리 가자는 것이다.

"빨리 오세요."

그래서 보았더니 내가 서 있는곳과 에덴동산엔 통나무로 엮은 긴 다리가 놓여있고 통나무위에 가마니로 덮은 그 위에 줄을 뿌린듯한 다리로 절벽과 낙원에 연결된 다리위에 아가씨는 무서움도 없이 미소짓고 서 있었다.

나는 얼굴도 이쁜아가씨가 겁이란 자체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이 다리위에서 해맑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가자고 해서 그 순간 황홀한 마음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 천사를 만나며 내 차림새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에 무조건 따라갈 수 없어 천사에게 물어 보았다.

"아니. 어디로 갈니까?."

천사는 먼저 내 궁금함을 준비했듯이 내 물음을 듣자마자 곧바로 대답하였다.

"하나님께 갑니다."

나는 하나님 소리에 광야생활을 할 때 고통속에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쓰며 욕도 많이하여 순간 겁도나며 두려움에 도망갈 장소도 없고 또 이쁜 여자천사 앞에서 죽으나 사나 어떤 천벌을 받아도 외나무 다리에 붙잡혀 고스란히 따라야 했지만 이곳이 내가 아버지와 살던 에덴동산 낙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름으로 올라 갈 새 하늘이고 땅에서 동역자로 나와 일하는 사람들은 낙원의 한 마을에 살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시대 하나님 징계속에 인생의 광야생활을 하며 고통스럽고 아픔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 불만도 많고 하나님없다며 나쁜짓 많이하여 벌주기 위해 천사를 보내 잡으로 왔다는 생각을 했고 도망갈 장소도 없어 죽으나 사나 따라야 했고 다리에 올라서면 현기증에 떨어질것 같아 쪼그리고 앉아서 조심스럽게 한발 두발 옮기자 내 생각과 상관없이 발이 빛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아~악....."

난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깨어나자 원주기독병원 응급실에서 혼수상태에서 1주일동안 생사를 해왔던 것이고 그때 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신 철저한 고통과 처참함으로 인간들의 온갖 죄악을 대신하여 또 십자가를 매고서 추하고 별레같은 육체로 징계를 받아 인류만인을 구원하기 나를 철저한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198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피박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창으로 찔리고 참혹하게 처형된 저주받은 모습같이 내 인생도 참혹한 형벌로 고통속에 상처받으며 별레 같이 살았지만 이젠 아버지의 모든 뜻을 깨우쳐 사나 죽으나 위로 삼아 고통스러워도 낙원과 아버지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여러분도 지금 성전에 충성하고 봉사활동과 헌신해도 엄청나게 괴롭고 고통스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죽으면 영광스런 면류관의 여기 에덴동산 낙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뵈히 보시며 그 괴로운 심정을 아버지도 괴로우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곧 아버지께서 상급할 것이며 앞으로 본인과 자녀와 후손이 큰 성공자로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모든말씀 전능하시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음의 영혼도 살려 영생을 주시어 보호하시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호와 주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직고드립니다.....아~뻘

목록

이전글  
목포여성상담센터 상담안내

다음글  
건강을주습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

***MokPo - Si***  
***Web Contents***

